

글 _ 전홍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제방



9월 말의 필라델피아는 맑은 하늘, 따가운 햇살 그리고 한결 서늘해진 바람으로 가을의 문턱을 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무더위보다 더한 열병을 앓고 있다. 지난여름,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4주년을 맞은 9·11이 겹쳐 미국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허리케인 앞에 맥없이 무너진 제방과 함께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자존심도 무너졌기 때문이다.

재난 속에 빛을 발한 시민 참여
대재난에 정부와 재해구호기관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시민들은 거의 '반사적'이라고 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리케인 10일 만에 미국 전역에서 모인 성금이 7억 4000만달러(약 8천억원)로 9·11 테러 때의 같은 기간 모금액의 3배를 넘어선 것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13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유니티드웨이도 적십자와 함께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할 내부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불과 1시간 만에 30여 명의 직원이 주말 저녁 자원봉사자로 신청하는 등 거의 '의무처럼'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미 전역이 들쭉이는 가운데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인터넷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모금 매체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적십자사의 총모금액 5억 7800만달러 중 절반이 넘는 3억달러가 인터넷을 통해 모인 것을 비롯해, 5100만달러를 모은 야후(Yahoo)와 1000만달러의 아마존(Amazon) 등 포털사이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움직임도 눈길을 끌었다. 루이지애나 지역의 수해피해 사실이 보도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주말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활용 장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이

런 시민적 행동의 확대 재생산 과정을 스스로 창조하고 또 동참함으로써 살아 있는 시민교육을 받고 있었다.

책가방에 담긴 아이들의 나눔 정신

최근 CNN 방송은 워싱턴 지역 세 자매가 시작한 사소한 아이디어가 전국적인 캠페인이 됐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허리케인의 피해로 집과 가재도구를 잃어버린 어른들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책가방과 학용품이 잃어버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발을 동동 굴렀으리라. 그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들 세 자매는 집에 남아도는 책가방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이 단순한 아이디어는 곧 많은 어린이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순식간에 '산더미 같은 책가방'이 모이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디서나 있을 법한 얘기들이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다. 아이들의 이런 순진한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은 여기에 강당과 자원봉사자를 더해 산더미 같은 책가방을 분류하고 또 책가방마다 적당한 학용품을 넣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일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어른들은 돈을 기부하지만 우리들은 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책가방 모으기를 시작하게 됐다"는 귀엽지만 당찬 아이들. 어른들의 자만과 안일이 초래한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아이들은 나누며 사는 방법을 온몸으로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었다.

이런 미국 아이들의 모습에서 문득 지난해 '사랑의 열매'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설문 결과가 떠올랐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낸 수재민돕기나 이웃돕기캠페인 기부금은 '부모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공부와 시험에 몰려, 나눔의 삶도 그저 돈만 주면 되는 것으로만 여기는 우리 아이들...

작지만 소중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와 사회야말로 어떤 재해와 재난이 오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제방이다.